

荊防地黃湯 研究

全炳烈*·金光澤*·林長青**·整理**

朝鮮民族醫學의 醫聖이며 四象醫學(東醫壽世保元)의 創始者이신 東武李濟馬先生이 친히 立法制方한 少陽人, 治虛勞主方인 荊防地黃湯은 熟地, 山茱萸, 茯苓 澤瀉, 荊芥, 防風, 羌活, 車前子등 九味藥으로 組成되었는데 四象醫들은 本方을 응용하여 臨床中 虛勞는 물론, 少陽人의 中風을 爲主로 하여 心腦血管病으로부터 呼吸系, 消化系, 運動系, 泌尿生殖系, 內婦兒科등 諸病을 治療하여 번마다 아주 滿足스러운 效果를 보았다고 한다.

先師들은 수십년간 주로 中醫事業에 종사해오면서 四象醫學에 特別한 興趣가 있어서 從醫初期로부터 주위 四象醫들과 相互學習, 交流, 研討하여 有關 書籍을 탐독하여 臨床에 應用한 가운데서 辨象이 제대로 된 少陽人에게 荊防地黃湯을 投與했더니 頭腹痛, 泄瀉, 咳嗽, 虛勞 不問하고 全部 효과있고 몇 貼을 쓰면 아주 顯著한 豫想外 速한 效험이 알려졌다. 하여 近 10年前부터 臨床中 95%비례에 해당하는 患者에게는 辨象하여 四象方을 썼는바 其中 荊防地黃湯에 대한 호기심은 제일 컸고 本方에 대한 研究도 제일 많았는바 현재 初步적인 水準의 文章을 諸學者와 동료들 앞에 내놓는데 그 目的인즉 本方의 治療原理를 똑똑히 모르고 쓰던(自身도 포함) 局面에서 벗어나 四象醫學의 獨特한 臟局理論

에 기초한 生理, 病理機轉에 依하여 方藥이 作用하고 治療目的에도 도달한다는 심오한 理論의 指導하에서만이 理論과 實踐이 結合되어 科學的이고 獨一無二한 우리 朝鮮民族의 優越한 醫學이라는 點을 世界에 알리려는데 있다.

아래에 中醫에서 滋陰補腎의 代表方劑인 六味地黃湯과의 對比研究 즉 六味地黃湯에서 山藥, 牡丹皮를 減하고 荊芥, 防風, 羌活, 車前子를 加한 것과 荊防羌獨이 補陰藥이란 論點을 비롯한 本方의 전반 情況을 系統的으로 研究하여 보자.

1) 六味地黃湯에서 山藥을 減한 理由, 山藥은 補脾壯肺하는 性溫한 藥인바 少陽人은 本是 脾大하므로 脾火를 充足시켜 肺金이 空殼 되는 것을 미리 돌볼 必要가 전혀 없기 때문에 山藥을 빼고 오히려 脾火가 너무 盛함으로써 惹起될수 있는 熱生風을 제거하는 作用과 腎에서 일어나는 伏風을 驅逐하는 作用을 하기 위하여 防風과 獨活을 加하였다.

2) 六味地黃湯에서 牡丹皮를 減 理由는 牡丹皮는 本是 少陽人 中에서 錯綜腎氣之參伍均調하는 藥性을 所有한 少陽人 主要藥一種이다. 中醫藥性으로 볼 때 牡丹皮는 涼血하고 手足陰血中の 伏火를 瀉하면서 通經하고 壅滯를 푸는 作用을 하는 약인바 腎小脾大하여 腎陰의 虛해 陽이 相對的으로 亢盛하

* 延邊中醫醫院

** 延邊民族醫藥研究所

는 少陽人의 補藥處方에 必要필듯 한것이 事實이나 東武先生은 寒涼之性이 강한 약이 直接 血中에서 作用하는 경우 一步를 그릇치면 眞陽이 死藏할 念慮가 되며 더우기 荊防地黃湯의 組方目的이 虛勞를 治療하려는데 있거늘 牡丹皮를 빼는것에 대해 쉽게 理解가 되는 것이다.

3) 發散風寒하는 荊防羌獨, 4 種藥과 通利濕熱하는 車前子를 加味한 理由를 볼진데 “脾大腎小” 體局인 少陽人의 生理, 病理特点으로 보면 脾火가 強하여 일어나는 風(熱生風)과 腎陰이 弱하여 일어나는 伏風(陽虛生內熱, 熱生風)을 驅逐하는 문제는 治療大法中 마땅히 首先먼저 고려해야할 중요한 문제이다. 때문에 東武는 補陰補腎主方에 荊防, 羌獨을 加하여 脾腎膀胱經의 風熱을 發散하게 했는바 少陽人의 脾局陰氣가 郁結됨으로써 腎局陽氣가 上升하지 못하는 因素를 除祛하게 하였다.

그리고 本方에 車前子를 加하는 目的은 能升能降의 特殊作用이 있는 車前子는 肺肝, 腎經에 들어가서 瀉熱, 通利하기에 上, 下焦의 濕熱이 자연히 水道로 下行하게 되어 脾腸濕熱이 철저히 瀉하게 되어 腎中清氣가 順調로히 上升하게 하였다.

4) 東武가 立本方하면서 單本方論說에 <<荊防羌獨은 俱是 補陰藥이다.>>라고 論說한 理由는 무엇일까? 실로 이 論說은 萬人들의 耳目을 集中시켰으며 世醫들의 疑惑또한 많았었고 爭으로 亦是 이점에 모이고 있다. 먼저 單藥性의 理論으로 研究한다면 荊防羌獨 4種藥은 그 藥性이 辛하기에 能散能行하는 特性을 所有하고 있는데 其 歸經이 다름에 따라 荊防은 上中焦의 風熱을 發散하고 羌獨은 下焦腎膀胱의 郁伏之火를 升發시키는 作用이 있다. 다음 少陽人의 臟局大小와 그의 生理, 병리로 보면 脾胃之火過旺之余幣가 淸掃되고 腎膀胱의 風熱이 發散되어야만 脾局陰氣가 郁結됨으로써 腎局陽氣가 上升하지 못하는 문제가 自然히 解決받게 된다. 이로부터 少陽人의 虛勞는 반드시 補陰補腎하여야 하

는데 補陰하려면 淸胸膈之風熱함과 同時 除腎膀胱伏火해야 할것인바 荊防羌獨이 틀림없이 이 역할을 할 수있는 것을 알수있되 그것은 직접적이 아니라 間摺의으로 補陰한다는 理由가 더욱 바람직하다. 이로부터 四象醫學은 그의 독특한 理論體系가 明確하고 辨象治療는 治本中の 治本인 根本的인 아주 철저한 치료로 됨에 손색이 없음을 다시금 심심히 느끼게 된다.

이상 알아본 4가지 문제점으로부터 本方의 基本特点을 알게 되었는바 다음 本方이 少陽人의 虛勞를 治療하는 제일의 本方으로서 屢詩屢驗의 常用方劑로 되는 문제를 研究해보자 本方設方의 目的은 補腎補陰으로 虛勞가 治療目的이기에 熟地(君)으로 滋陰填精補髓함으로써 水의 主管處를 保護하게 하여 (水를 만드는 其盤處를 補함)人間生命 活動인 眞火가 살수있으며 또한 活動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었다. 다음 眞火를 만드는 역을 擔當하는 健腎直腎의 藥性을 소유한 陰中之陽을 도와(補腎助陽)耗散之陽을 收하는 山茱萸를 選擇하여 熟地와 配合하여 熟地로서 이루어놓은 陰陽之宅(택)에 茯陽을 收藏시키는 役割을 保護한다는 것뿐이고 그 活動條件을 잘 보장해준다고 까지는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益脾寧神하면서 陽을 收斂해가지고 下行하여 固腎立腎하는 茯苓과 壯腎而有外攘之勢의 藥性인 下焦濕熱을 除去하여 다시 升陽作用을 할 契機를 만들수 있는 澤瀉를 起用하여 두약이 서로 合力하여 靜而不走하던 水를 固腎立腎하는 茯苓과 壯腎而有外攘之勢의 藥性인지 下焦濕熱을 除去하여 다시 升陽作用을 할 契機를 만들 수 있는 澤瀉를 起用하여 두약이 서로 合力하여 靜而不走하던 水를 動而不固하는 流動之水로 바뀌우게 하였다. 이로서 人體의 輕활한 動靜과 散合作用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기틀을 이루어지게 하였다. 하지만 眞陽이 水火之間에서 來往하면서 氣血이 마음대로 運行하고 水液代謝가 順調로이 되어 生命活動이 잘

될 수 있는 부단한 活動要因을 만들어야만 되었다. 고로 間接補陰하는 荊防羌獨과 車前子를 加하여 佐使藥으로 君臣之藥이 감당할수 없는 作用을 하게 하였는바 이미 우에서 토론을 거쳤다. 비록 약중은 二補七瀉의 9종인 간단한 처방이지만 完全不缺하고 功大效好한 荊防地黃湯이 問世하게 되었다.

東武先生은 新定小陽人病 응용要約十七方中 단지 荊防地黃湯에서만 本方 加味藥으로 其他 많은 病證을 治療하는 法을 제일 많이 討論하였는바 이로부터 本方은 少陽人 處方中의 基礎方이기에 틀림없음을 알수있다. 아래에 계속 加減施治內容을 알아보기로 하자.

1) 咳嗽에는 前胡를 加했는바 前胡는 入肺經하여 散風熱下氣消痰하는 약으로 荊防을 협조하여 散上焦風熱하는 力을 더해주고 下氣消痰하여 止咳하게 한다.

2) 血證에는 玄參 牧丹皮를 加했다. 血證 즉 衄血, 吐血, 尿血, 便血, 齒舌出血등 諸病에서는 주로 少陽人이 陰虛하기에 血中伏火가 생기여 나타나는 主되는 根本原因에 着眼하여 涼血함과 더불어 血分之熱을 除去할 수 있는 牧丹皮와 肺腎二經의 浮游之火를 瀉하는 玄參을 써서 內外動血의 原因을 없게 하였다.

3) 本方에 黃連, 牛蒡子를 加味하여 偏頭痛을 治療한다 했는데 黃連은 醒腎之眞氣의 獨特藥性所有의 藥으로서 心肝腎脾胃에 壅滯된 郁火를 瀉하고 牛蒡子는 入脾胃二經하여 散上中焦之風熱하는 약으

로서 黃連과 合力하여 郁熱로 인해 腎之眞氣가 郁滯되어 생기는 偏頭痛의 原因이 없어지게 한다.

4) 食滯痞滿의 경우에는 牧丹皮를 加한다. 丹皮는 手足少陽經血中의 伏火를 瀉하면서 壅滯를 푸는 약으로서 錯綜腎氣之參伍均調하는 獨特한 藥性을 所有하였기에 補陰生火, 升陽하는 本方에 이 藥을 加함으로써 脾中郁滯之火가 풀리어 食滯痞滿症이 곧 낮게된다.

5) 만약 火盛熱煩하는 경우에는 太陰陽明之火를 除去하고 清熱降火通便하는 石膏를 가해서 水升火降이 잘되게 해야하고 만약 頭痛이 나고 煩熱이 나며 血證이 있는데는 熟地대신 生地를 쓰라고 했는데 그 理由라면 少陽人의 頭痛은 흔히 陰虛陽亢으로 오는데 一般의인 頭痛에는 補陰降火하는 本方으로 治療가 가능하나 煩熱이 急速히 除去되고 血中之伏火가 瀉되여야만 頭痛이 따라 나아질수 있다. 이 때에는 入心腎裏瀉火清金하고 涼血하면서 胸膈之間에서 일어나는 血逆을 和解하는 生地黃으로 純補陰補腎하는 熟地를 바꾸어야 한다. 위를 다시볼 때 玄參, 牧丹皮로 血證을 다스린것은 心腎經의 血中伏火를 內瀉함으로써 血脈을 調節하려는 것이 目的이므로 山茱萸의 收斂包陽作用을 빌어서 현대의 학각도에서 볼때 모세혈관의 收斂을 돕게 하는 것이 絶對로 必要되겠지만 石膏를 쓸 頭痛兼血證인 경우에는 上焦와 中焦의 煩熱때문에 動血되는 血逆을 平靜하려는 것이므로 應當 瀉火調血해야 할 것 인즉 山茱萸의 收斂은 도리어 瀉火作用을 防害하기에 빠버린 것이다.